

사설

범종단 연등축제로

불교계와 불자들의 최대의 축제일은 부처님오신날이다. 수없이 많은 여래가 이 땅에 오셨고, 또 다시 올 것이다. 시작도 끝도 없는 행진에 접을 찍어 우리 중생들은 색신(色身)으로 오신 석가모니 부처님의 탄일(誕日)을 기린다. 그날을 맞아 그분이 세우신 커다란 비원(悲願)을 상기하고 이땅에서의 우리 삶의 실상을 되돌아보는 전기로 삼는다. 수많은 범종이 울리고 다양한 행사가 벌어진다. 범종의 정점은 역시 연등행사이다. 범종의 등불을 들고 세상의 어둠을 밝히려는 그분처럼, 우리 또한 그 불을 하나씩 켜고 삼세(三世)의 무명(無明)을 밝히고 죄업을 물리치는 기원을 올린다. 그 행사가 지난해부터 동대문운동장에서 조계사까지 이어진다.

그동안 문화가 다르고 교리에 이견이 있더라도 전 종단은 원음(圓音)의 큰 뜻에 비추어 이날 한 마음이 되어 부처님오신날을 기려왔다. 그런데 빈자(貧者)의 일등(一燈)을 환희심의 정성으로 준비하고 있는 불자들에게 우울한 소식이 들려오고 있다. 이번 행사는 예년과 달리 조계종을 제외한 여러 종단들이 불참하게 될 것이라는 소식이 있다. 표면적인 이유는 행사를 누가 주최하느냐를 둘러싸고 벌어졌다.

그동안은 종단협의회가 주최하고 조계종이 주관했는데, 이번에는 조계종이 주최를 맡게 되면서 여러 종단이 소외되었고 이에 대한 불만이 행사불참으로 나타났다. 각 종단들은 독자적으로 행사를 기획하고 각 지역의 사업연합회를 통해 행사를 갖을 계획으로 알려졌다.

일찍이 불교연행사가 이뤄졌던 적이 없지는 않다. 60년대 초 불교정화회 조계종과 태고종이 각각 선학원과 조계사에서 연등행사를 가졌던 적이 있다. 그러나 72년 태고종이 정

식 종단등록을 하고, '부처님오신날'이 공휴일로 제정되면서 불교계는 연등 범종행사를 범종단차원에서 여법(如法)한 국민적 축제로 정착시켰다.

이제 그 전통이 도전받고 있는 것이다. 빌미는 아무래도 조계종이 준 듯하다. 그동안은 여러 종단이 함께 비용을 협출하고 울려퍼 보태며, 행사계획에도 참여했다. 그런데 올해는 조계종이 비용도 전액 부담하고, 계획도 독자적으로 구상하는 등 행사추진을 주도한 것으로 전해진다. 불은 조계종이 짜고 행사도 조계종이 벌인 테니 그저 자리를 빛내고 둘러만 서는 행사에는 참여치 않겠다고 생각한 듯하다. 이번의 결정에는 그동안 조계종의 독주에 대한 누적된 불만도 작용했다. 마음을 다치면 방법이 없다. 조계종은 불교계의 중심답게 다른 종파에 대해 배려의 도량을 보였어야 한다. 상(相)이 없는 법(法)에 주인이 어디 있으며, 아(我)가 없는 마당에 주최는 또 무슨 말이다. 불교는 조계종단만의 일이 아니라 중생 모두의 일임을 알고 대승적 포용력을 발휘하기를 기대한다.

여러 종단도 소아(小我)에 연연하지 말고 뜻깊은 대사에 수회동참하기를 간곡히 바란다. 부처님은 가슴에 연꽃을 들어 위대한 소식을 전했다. 진흙 속에 살피 뱀에 매몰되지 않는 연꽃은 세속사의 시비독실(是非得失)이 허망한 것임을, 그 너머에 깨어(覺醒)과 고락(苦樂)의 팔풍(八風)이 틀림(亂)할 수 없는 절대 세계가 있음을 가르치셨다. 부처님의 소식을 법으로 알고 생활하는 사람들이 그 가르침의 뜻을 한 순간이나 저버려서는 안될 것인데, 하물며 부처님오신날이야...

불자들이 범종단적으로 참석하지 않는 연등축제를 여찌 시민축제 또는 국민축제로 승화시킬 수 있던 말인 것이다. 그러나 72년 태고종이 정

열린마당

연등공양비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전국 사찰은 불법의 지혜로 사회의 어둠을 밝히려는 연등을 준비하느라 분주하다. 연등공양은 부처님오신날을 기리며 공덕을 쌓으려는 '빈자의 일등'의 보시정신 실천이다. 그러나 연등공양비에 대해 우려의 소리가 나오고 있다. 각 사찰 연등공양비의 실상을 점검하고 다양한 의견을 들어본다. <편집자 주>

'無등값' 실시 燈 수량 늘고 신도 호평

종연(권익산 성주암 주지)

원래 등값은 없는 것이다. 불교에서는 평등의 가르침을 펴기 때문에 있는 사람 없는 사람 모두 차별이 없다. 그러나 신도들이 쌀과같은 공양물이 사찰이 복잡하고 제도화되면서 편의에 의해서 사찰에서도 등값이 생기게 된 것으로 알고있다. 우리 사찰은 1년 총예산의 4분의 1이 초파일 등값으로 충당돼 왔다. 그러나 작년 일부 관악산 등산객들이 절에 들려 연등을 달면서 "사찰이 마치 연등판매하는 인상이다"는 의견을 들은 종무원들이 '無등값'을 건의해 연등값을 없애게 됐다. 연등은 신도들의 집수순서대로 위치관계없이 차례로 달기때문에 일이 편하고 신도들도 좋아한다.

차등제 운영 '타당'... 등값 조정에 신중

화암(동선사 총무국장)

등공양은 신심의 표현이다. 따라서 불자들은 부처님오신날 등을 구입, 불을 밝히며 환희심으로 부처님 오심을 기린다. 이처럼 등을 사고 불을 밝히는 것은 불자들의 필수적인 과정으로 여겨진다. 따라서 등을 구입하는 불자들을 위해 사찰은 등값을 정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는 빈부의 격차를 조장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개인의 행편에 따라 자유롭게 등을 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다만 지나친 고가의 등은 자제해야 한다고 본다. 이같은 점을 고려할 때 등값은 현행처럼 가격을 정해야 하며 불자들은 생활형편이나 역량에 맞게 등을 달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만약 등값에 대한 이같은 기준이 없이 자유화된다면 등문화가 퇴색돼 등공양의 본래 의미가 상실될 수 있기 때문이다.

가격 균일·수익금 사회회향 '바람직'

구운희(성보사포교원 원장)

개인적으로 절에 가보니 빈부차이가 심하다는 생각을 갖게 됐다. 그래서 포교담을 운영하게되면서 등값을 없애게 됐다. 우리절에서는 부지런한 사람은 그만큼 정성이 있으니 먼저 켜 수가 있다. 이런 차등없는 등보시공양은 부처님 오심을 기뻐하는 분위기가 조성되도록 하는 것이 주목적이다. 포교담을 개인하기전 절에 다니면서 빈부의 차이가 심하다는 생각을 갖게 됐다. 연등공양비로 인해 부처님오신날의 의미가 퇴색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것과 부처님이 이땅에 다시 오신다면 어디에서 설법을 할 것인가도 생각해 보았다. 험

그러나 사찰이나 스님들이 연등에 의존해 사는 것은 아닌만큼 이에대한 강조도 적절치 않다고 본다. 연등공양비는 어떤 식으로 한다고 해도 그 의미는 같다고 본다. 다만 우리사찰은 이런 방식이 효과가 있다고 판단되는 만큼 계속 이 방식을 고수한다는 방침이다. 약간의 부족했던 재정도 정기법회에서 인정이 늘어나는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으니 결과적으로 사찰의 운영에는 변화가 없다.

다만 등문화가 퇴색돼 등공양의 본래 의미가 상실될 수 있기 때문이다. 등값을 정해야 하는 또하나의 요인은 사찰경제와 직결된다는 점이다. 우리 불교계의 현실은 대부분 부처님오신날 연등공양비로 한해 절살림을 꾸려가고 있는 현실이다. 게다가 사찰이 사회에서 요구하는 불사들을 윈만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등값을 정하는 것은 당연한 일일 것이다. 이 로인해 사찰은 지역사회를 위한 복지나 포교 등의 활동을 활발히 펼칠 수 있을 뿐 아니라 불교가 발전하는 길이기 때문이다. 반면 사찰도 경제적 흐름이나 제반 상황을 고려해 등값조정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다. 부처님오신날 등공양의 의미는 퇴색되지 않는 가운데 본래의 뜻을 기릴 수 있게 될 것이다.

벗고 굶주린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종교가 불교라고 생각했다. 이런 생각에서 성보사포교원은 10년전부터 일률적으로 똑같이 집수 순서대로 1천여등을 켜다. 보시금의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등크기 색깔 모든 것을 똑같이 한다. 그러다보니 불자들이 연등 갖추에 부담감도 안느끼고 마음껏 켜 수 있다며 좋아한다. 사찰에서는 연등이 많이 걸려 부처님오신날을 기쁘게 장식할 수 있으니 좋고 신도들도 걸림이 없으니 행복해 한다. 또 널리 알려지다보니 찾는 사람도 늘고 신도들의 자부심도 대단한 편이다. 연등공양비가 사찰 재정확보로 인식되고 있지만 불교적으로는 어려운 이들을 돕는 사회회향으로 전환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부처님오신날을 풍축하고 불심을 하나로 묶어주는 연등은 자기들 밝히고 어두운 사바세계를 밝혀준다. <사진=고영배 기자>

등공양비 의미와 현행

등(燈)은 어둠을 밝히는 의미로 불교에서는 부처님의 지혜와 가르침을 상징한다. 즉 법등은 중생의 어리석음과 세상의 어둠을 밝혀준다는 뜻이다. 연등은 원래 '자신과 법을 등불로 삼고 의지하라(自燈明 法燈明)'는 부처님 열반송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가르침은 자신이 삶의 주인임을 강조한 것이다. 경전에 보면 '가난한 여인의 꺼지지 않는 등불' 등 등명의 공덕이 나타나 있다. 그만큼 연등공양은 배움을 수 없는 불자의 의무이다. 이처럼 불자들이 부처님 전에 등공양을 올리는 것은 번뇌와 무명에 휩싸여 있는 세계를 밝혀주는 부처님의 공덕을 예경하고 그 가르침을 펴서 깨달음의 세계로 들어가고 싶다는 마음을 나타내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의미에서 보면 등공양의 공덕은 거론할 필요가 없는 수승한 표현이란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연등은 원래 북쪽지방과 남쪽지방 사찰에서 많이 걸었으며 중부지방은 초파일에도 기념으로 일부 켜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 6·25를 전후한 50년대는 연등을 켜지 않는 공백기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사회가 현대화되면서 60년대부터 등켜는 문화가 성행하게 된 사찰에서는 7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연등공양이 화폐로 쓰이면서 연등비도 한 등에 최고 상한가가 정해졌다. 따라서 경제적인 사정으로 등켜기를 부담스러워하는 등 연등에 담긴 '빈자일등(貧者一燈)'의 등올리는 큰 의미가 퇴색되는 것 아니냐는 의견도 있다. 등공양비의 경우 차등제를 채택하는 사찰이 대부분이고

부처님예경 '빈자일등' 정신 표현 연등 공양비 사찰 경제에 기여

자하는 일을 세우는 것으로 해석 할 수 있다. 그런의미에서 보면 등공양의 공덕은 거론할 필요가 없는 수승한 표현이란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연등은 원래 북쪽지방과 남쪽지방 사찰에서 많이 걸었으며 중부지방은 초파일에도 기념으로 일부 켜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 6·25를 전후한 50년대는 연등을 켜지 않는 공백기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사회가 현대화되면서 60년대부터 등켜는 문화가 성행하게 된 사찰에서는 7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연등공양이 화폐로 쓰이면서 연등비도 한 등에 최고 상한가가 정해졌다. 따라서 경제적인 사정으로 등켜기를 부담스러워하는 등 연등에 담긴 '빈자일등(貧者一燈)'의 등올리는 큰 의미가 퇴색되는 것 아니냐는 의견도 있다. 등공양비의 경우 차등제를 채택하는 사찰이 대부분이고

정리: 김민준

현대만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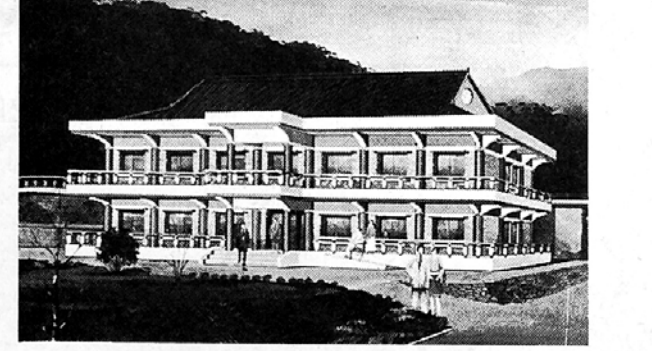
제대로 복원될까

법륜사 양로원 안내문

노후를 부처님과 함께 ...

삼보귀의 하옵고, 급변하는 사회적인 변화로 대가족제도가 무너지고 개인주의 만연과 물질이 좌우하는 배금사상의 통니바퀴속에서 우리의 자량인 효(孝)의 근본(根本)이 흔들리는 현실속에서 허덕이다 보니 부모와 자손 형제들이 알지 못하는 순간에 인성이 무너지는 것을 어찌하리! 이러한 불안요소가 정년퇴직하신 분이나 연로하신 노인분께서는 한을 갖게됨에 따라 가족간에 갈등이 심화되니 누구에게 책임 있던 말인가? 하루가 일년같이 빠른시대에 살고 있는 연법(緣法)인 것을 세상을 떠났다고도 연법은 계속 유지되는 것! 우리 불자님께서는 인연법을 중요시 하므로 연로하신 부모님에게 효행을 할 수 있는 길은 부모님의 몸과 마음을 편안케 해 드리는 것이 유일한 효행이라 아니 할 수 없습니다. 소승이 평소에 보고 들은바 원력을 힘입어 금반이 가야산과 지리산이 합쳐진 만대산에 산수 수려하고 운치 좋은자리에 법륜사 대웅전 및 양로원을 장건함에 따라 낙성식전에 불성 깊은 불자님과 인연되어 남너노인을 자비심 도량에 모시기를 부처님전에 예를 올립니다! 아담한 현대식과 한옥이 어울린 최고의 설계 및 시설

또한 자체농사로 무공해 음식을 제공하면 가족분이 오셔서 수행할 수 있는 여건과 특히 주말 농장을 입주하신 노인분들의 가족에게 무료로 제공하며, 육탕 및 독서실, 오락등의 편의시설이 마련되고 또한 일하고 싶긴 삶이 지치고 허한 가슴에 맺혀있는 한을 기도와 좌선예를 통해 주신 가족분들께서도 그 공덕이 세세 손손까지 부처님의 복록을 얻게 될 것입니다! 노인분들의 건강과 취미에 따라서 비구니 스님께서 불보살을 대하듯 자비심으로 모시게 되오니 많은 인연철을 통해 남·너 노인분을 한정된 인원까지 모시겠습니다.



구분별 양로 내용 및 금액			
구분	분	유료양로원	기 타
1	남	65명	간병, 배, 약성피부, 전염성제외
2	남	1실 1명	서로의 성격을 보고 사주상의 합인을 선정
3	남	1명	해당 4천만원 단 사망시 공제됨
4	남	2명	1인 삼천오백만원 합7천만원 공제됨
5	남	1명	삼천만원에 월30만 사망시 보종금 환불
6	남	1실 1명	식대, 편의시설 제공 월30만원
7	남	각 방 마다	벽장장과 거울부착 텔레비전 전화기등설치
8	남	1997년4월1일부터 1997년 5월30일까지	
9	남	1997년 5월1일부터 입주까지	

- * 뜻과 불심의 행을 신천하는 가정에 삼보의 자비가 중만하소서!
- * 빠른 시일안에 접수가 마감되오니 미리 접수바랍니다.
- ☐ 문의안내 : 합천법륜사 (0543)955-1379
마산법륜사포교당 (0551)21-8775
- * 계좌번호 : 우체국 610097-0119059(김상봉)
- * 대구은행계좌 : 208-08-024746(손동분)